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포유류

기쿠치 계곡은 풍요로운 숲과 맑은 강이 만들어내는 생태계 내에 사는 동물들의 낙원이다. 포유류로는 쥐, 두더지, 박쥐, 담비, 날다람쥐, 너구리 등 약 20 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동물들의 대부분은 작고 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실제로 볼 기회가 매우 드물다. 계곡에서 특징적인 포유류는 겨울잠쥐와 일본갯참서 2종이다.

야행성인 **겨울잠쥐**(*Glirulus japonicus*)는 몸길이 6.5~8 센티미터로 5 센티미터 정도의 굵고 더부룩한 꼬리를 갖고 있다. 털은 연한 갈색이고 등에 검은 선이 있으며, 나무 위에서 과일이나 꽃의 꿀, 곤충 등을 먹으며 지낸다. 발가락에 작고 굵은 발톱이 있어 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일본갯참서(*Chimarrogale platycephalus*)는 일본에 서식하는 육생 포유류 가운데 유일하게 담수 지역에서 수중 생활에 적응한 동물이다. 몸길이 11~14 센티미터이고, 회흑색의 짧은 털이 뽁뽁이 나 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 역할을 하는 뱃뱃한 털이 나 있다. 어두운 강을 헤엄쳐 수생 곤충, 작은 게와 새우,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기쿠치 계곡처럼 여울과 조용한 연못이 혼재하는 장소를 좋아한다.